

教育內容

朴 東 緒

(教 授)

여기서 考察하려고 하는 것은 行政大學院生을 지난 10年間 어떻게 어떠한 內容의 教育을 해 왔느냐 하는 것이므로 직접 教育의 內容만을 논의 하는 것도 하나의 方法이겠으나 우선 먼저 教育을 받은 學生들이 어떠한 入試를 거쳐 入校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成分은 어떠한 가를 검토하는 것이 必要할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서는 內容을 大體로 入試, 教科課程, 學生指導의 세가지로 나누어 檢討하려고 한다.

1. 入 試

(1) 入學資格

1959年에 行政大學院을 從來 있었던 一般大學院과 別途로 수립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 學校가 여러가지 特殊性을 지녔기 때문이며 이러한 性格은 入試資格부터 나타나고 있다.

① 行政學科의 경우 大學院의 設立趣旨에 따라 學部에서의 專攻을 묻지 않는 것으로 처음부터 現在까지 되어 있다. 이의 理由는 現代政府가 學部에서의 모든 專攻者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바라는 理想的인 것은 가령 英文學科 出身은 行政大學院에서 行政을 습득하고 그의 專攻을 살려 英文學의 知識을 活用할수 있는 職責을 行政府에서 맡는 것이다.

2部의 경우는 此外에 처음부터 高級公務員, 高級將校, 國營企業體 幹部에 자격을 制限하였다. 그 主된 理由는 教育의 實踐面에의 波及效果를 높혀 보자는데 있는 것이며, 또 하나 부수적인 것은 一部生의 就職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資格에 追加된 것이 1966年 부터 大規模 企業體의 高級幹部이었는데 이의 趣旨은 이들로 부터의 需要가 계속됐고 또한 產業會社의 發展에 따라 특히 韓國의 경우 政府와 私企業間의 關係가 긴밀 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극소수의 人員이 入學되었으나 別로 滿足스러운 結果를 얻은 것 같지 않다.

끝으로 또 하나의 變化는 一部의 경우 1969年 부터 最高年齡 制限을 滿 32歲로 制限하기로 하였는데 이의 意圖는 大學院의 教育目的인 公務員이 되거나 學界에 나가는 경우 高齡者는 效果가 적다는데 있으며 今年의 入試의 結果를 보고 今後 다시 年齡을 引下할 생각이다.

②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경우 行政學科와 달리 이 分野의 專門家를 양성하는데 目的이

있으므로 學部에서의 專攻學科를 關聯學科로 制限을 가하고 있음이 特色이다.

(2) 試驗內容

試驗內容은 上述한 資格要件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생각된다.

① 行政學科의 경우 처음부터 이를 決定하는데 고려된 것은 어느 學科 出身이나 差別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一部와 二部는 教育目的, 學生의 資格이 다르므로 入試科目도 大體로 달리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우선 中間의 變遷을 檢討하면 첫째 1961年 까지

共通科目 英語(해석, 작문)

選擇科目 1部: 法學概論, 政治學概論, 經濟學概論, 社會學概論, 心理學概論, 自然科學概論, 歷史(國史, 西洋史), 數學以上 8科目中 3科目.

2部: 法學概論, 政治學概論, 經濟學概論, 以上 3科目中 1科目選擇.

여기서 또 한가지 言及할 것은 受驗科目數를 적게 하고 있는데 그 理由는 入學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自己 專攻以外的 科目에 대한 受驗準備를 시킬 必要가 없기 때문인 것이다.

둘째, 1962年 一部의 경우 行政學과 第2外國語가, 2部の 경우 行政學이 選拔科目에 追加되었는데 行政學科 出身을 환영할 것은 없지만 他科出身에 비하여 不利하게 하지 않으려는 것과 第2外國語의 경우 從來의 一般大學院의 例를 덮어 놓고 따를 必要는 없으나 人文科學 出身이 主가 되겠지만 第2外國語를 理解하는 受驗生을 不利케 해서는 안되겠다는데 기인한다.

셋째, 1963年 選擇科目을 대폭적으로 다음과같이 增加, 變更하는 同時에 1부와 2部를 共通하게 하였다.

必須科目: 英語

選擇科目: 行政學, 行政法, 比較政府論, 社會心理學, 國際關係論, 財政學, 經濟原論, 經營學, 農業經濟學, 政治思想史, 文化史, 教育原理, 憲法, 民法, 刑法, 數學, 物理學, 化學, 生物學, 第二外國語(獨語 또는 佛語) 以上 20科目中 1部는 3科目, 2部는 2科目을 選擇.

이와 같이 대폭적으로 수정된 것은 從來의 科目이 모두 概論으로 되어 있어 이의 수준 및 깊이를 높혀 보자는데 있었다.

네째, 1965年 다시 會計學이 추가 되고 1部の 경우는 4科目을 수험케 함으로서 專攻學科에서 배운 것을 철저히 테스트 하려고 한 것이다.

다섯째, 1969年 다시 다음과 같이 대폭적인 修正을 하였다.

必須科目 英語

選擇科目 行政法, 行政學, 貨幣金融論, 心理學, 經濟學, 政治學, 社會學, 數學, (物理

學, 化學, 生物學)中 擇一, 第 2 外國語(獨語 또는 佛語)

1 部 2 部 다같이 13 科目中 세가목 선택. 일듯 보기에는 初創期의 것과 같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나 이와 같이 修正한 主要理由는 科目數가 너무 많아 특히 1968 年에는 後述하겠지만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 까지 합쳐 도저히 入試管理가 힘들어 이를 대폭 통합간소화 하려는 것과 그러면서도 다시 概論形式으로 돌아가지 않고 若干 經濟學科를 위시한 諸社會科學 專攻者를 우대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이 從來의 政策을 수정하려고 한 것은 政府에서 需要와 一部生의 就職方向을 고려에 넣은 것이었다.

②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는 上述한 바와 같은 理由로 이 科學의 性格 目的이 行政學科와 다르므로 入試科目도 多様하기는 하지만 總망라적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첫째, 1968 年

必須科目: 英 語

選擇科目: 行政法, 行政學, 財政學, 經濟原論, 農業經濟學, 數學, 物理學, 化學, 生物學, 農學, 林學, 土木工程學, 建築工學, 地質學, 經濟數學, 人口學, 都市計劃, 經濟地理, 調查方法, 第 2 外國語(獨語 또는 佛語) 以上 25 科目 中에서 1 部는 3 科目 2 部는 2 科目 選擇

이러한 많은 科目의 시험을 치른 結果 더구나 行政學科와 같이 하므로 入試管理가 지나치게 複雜하여 行政學科와 可及的 共通科目을 많이 하는 方向으로 修正을 加하여 다음과 같이 1969 年 부터 實施키로 했다.

둘째, 1969 年

必須科目: 英 語

選擇科目: 行政法, 行政學, 經濟學, 農業經濟學, 數學, 心理學, 地域社會 開發, 社會學, 政治學, 統計學, 土木工程學, 建築工學, 土壤學, 力學, 水理學, 地質學, 測量學, 人口學, 都市計劃, 經濟地理, 第 2 外國語, (獨語 또는 佛語) 以上 21 科目 中에서 2 科目

兩科의 경우 1 部の 경우에는 언제나 英語의 比重이 總點數의 三分之一을 차지하게 하여 왔다. 이理由는 行政學은 주로 英美에서 發展해 온 學問이라고 하는 學問의理由와 또한 實務界에서도 英語의 理解가 크게 요청된다고 하는 點에서이다. 後述하겠지만 大學院에서 어떠한 資格을 갖춘 學生을 양성해 내느냐에 있으며 누구나 어디로 가나 英語實力은 갖추어야겠는데 이를 위해 大學院에서 時間을 割當할 수는 없으므로 入學前에 實力을 갖추고 들어와야 한다는 취지이며 또한 지난 10 年間의 入學生의 實力은 이러한 기대에 一致되었다고 自負한다.

(3) 成 分

以上과 같은 入試資格을 가지고 試驗을 치러 合格된 學生이 어떠한 成分인가를 다음과 같은 몇가지 統計를 가지고 밝혀 보려고 한다.

① 學生數와 競爭率

5. 1, 2 部別 學生數(年度別)

年 度 別	一 部	二 部	計
1959	35	66	101
1960	30	70	100
1961	31	69	100
1962	30	70	100
1963	50	51	101
1964	50	50	100
1965	35	65	100
1966	35	60	101
1967	35	65	100
1968	37	63	100
都 市	15	10	25
計	383	645	1,028

나. 競 爭 率
行 政 學 科

年 度	1 部	2 部
1959	11,0 : 1	1,1 : 1
60	6,4 : 1	1,3 : 1
61	10,6 : 1	1,5 : 1
62	5,2 : 1	1,7 : 1
63	5,8 : 1	2,1 : 1
64	6,6 : 1	2,1 : 1
65	7,0 : 1	1,5 : 1
66	2,8 : 1	1,5 : 1
67	3,0 : 1	1,8 : 1
68	2,7 : 1	1,7 : 1
都 市 計 科		
68	1,5 : 1	1,5 : 1

처음 부터 1 部生 數를 적게 한 것은 學生의 質과 卒業後의 就職의 문제를 고려하여 한 것이 있으나 그후 1963 年에 50 名으로 증가 한 것은 2 部生의 數를 감소 하므로써 그들의 質的向上을 기함과 同時에 一部生의 就職의 展望이 若干 호전된데 기인 한다. 그러다가 이 문제가 다시 難關에 봉착하게 되자 2 年後인 1965 年 부터 다시 35 名으로 줄였으나 1968 年 부터 다시 점차적으로 1 部の 數를 증가 시켜나가려고 시도 하고 있으며 궁극의 목표는 2 部를 廢止하거나 30 名 線으로 감소 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의 質을 測定하기 곤란하나 入試競爭率을 보면 一部の 경우는 적어 졌으나 2部の 경우는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校內 교수들의 意見이나 入試成績을 통해서 볼적에 一部の 경우는 지난 10年間質에 있어 別로 變化가 없었던것 같으며 2部の 경우는 최근 2年來 급격히 向上되고 있다는데 의견의 一致를 보고 있다.

그리고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경우 1, 2部 競爭率은 적으나 志望한 學生의 質은 그들의 入試成績으로 보아 지극히 높았다. 더구나 1968年은 첫째로서 別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將來는 상당히 밝은 것으로 전망된다.

② 年齡別(入學時)

年齡別統計 (1部) (行政學科)

年度 \ 年齡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計
20										1	1
21	1									2	3
22	1		1	1	4		1			3	11
23	5	2	2	1	5	7	3	3	2	4	34
24	6	14	4	2	6	14	7	8	7	3	74
25	6	4	3	9	12	10	12	9	11	3	79
26	5	5	9	3	7	11	6	4	4	7	61
27	1	2	5	8	6	5	3	4	7	4	45
28	5	1	2	3	3	1	1	4		3	23
29	2		3	1	1	2			1	3	13
30	2	1	2				2	2	1	2	12
31	1							1	1	2	5
32				2							2
33		1			3						4
34											
35											
36											
37											
38									1		1
計	35	30	31	30	50	50	35	35	35	37	368

年齡別 統計 (2部) (行政學科)

年度 \ 年齡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計
23									1		1
24							1				1
25									2		2
26			2				2			1	5
27		4	1					3	4		12
28	3	1		3		1	1	2	2		13
29	3	2		3	3	1	2	1	2	2	19
30	4	5	3	3	4	3	1	1	2	6	32

31	4	3	5	8	4	4	4		1	4	37
32	7	5	8	7	6	2	3	6	5	4	53
33	6	3	3	6	7	8	2	4	2	7	48
34	4	5	3	6	3	4	9	5	8	8	55
35	11	7	11	5	3	5	7	11	3	3	66
36	6	5	7	6	5	7	6	7	7	1	57
37	5	3	2	8	4	3	8	1	5	7	46
38	3	8	5	2	4	3	4	6	5	7	47
39	4	6	4	4	1	4	3	2	2	4	34
40	1	4	4	4	3	1	4	3	6	2	32
41	1	4	1		2	2	2	4	5	2	23
42	1	2	3	1	2	1	4		1	1	16
43		2	4	1		1	1	2		2	13
44	1		2	2			1	5		1	12
45								3		1	4
46	1										1
47			1								1
48	1			1							2
49											
50									1		1
51											
52									1		1
53		1									1
計	66	70	69	70	51	50	65	66	65	63	635

年齡別 統計 (1.2部)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

年齡	部別		年齡	部別	
	1部	2部		1部	2部
22	2		37		3
23	3		38		
24	2		39		1
25	1		40		1
26	2		41		
27	2		42		
28	2		43		
29			44		
30		1	45		
31			46		
32			47		
33		1	48		
34	1	1	49		
35			50		1
36		1	計	25	10

우선 行政學科 一部生의 경우 Median 이 계속 大體로 25歲~26歲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

한 Mode도 25歲로 되어 있다. 32歲以上이 과거의 例로 보아 7名밖에 안되나 이들에 대한 교육효과는 문제가 많아 1969年度 부터는 우선 최고 年齡을 32歲로 制限하기로 했다. 다음 2部生의 경우도 Median이 大體로 35歲—36歲로 되어 있어 1部와 10年의 差가 나타나고 있으며 Mode는 35歲로 되어 있다. 그리고 大部分이 30歲와 40歲間에 分布되어 있어 40歲以上은 大體로 定員의 10% 未滿밖에 없어 비교적 年少하며 교육효과면에서 불적에 극히 다 행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事情은 都市 및 地域計劃 學科의 경우도 大體로 同一하다고 보겠다.

③ 出身學校 및 學科(1部生)

行政學科의 경우 언제나 서울大 出身이 過半數를 占하고 있으며 그內部에서는 文理大와 法大가 多數를 차지하고 있으며 非서울大의 경우는 高大와 延大가 많으며 1961, 1963, 1968年度에는 특히 出身學校數가 많아지고 있어 全國的 性格을 容許하게 되고 있다. 出身學科의 경우는 法律學科, 行政學科, 政外科, 經濟科出身이 全體의 3/2以上을 占하고 있으며 個別的 으로는 行政學科 出身이 증가하고 政治外交學科 出身이 감소하는 것 外에는 뚜렷한 傾向을 찾아 보기 힘들다.

入學試驗合格者出身學校別統計表(1部)

年度別 學校名	年 度 別 合 格 者 數										計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서울大文理大	10	6	5	10	6	14	7	4	8	7	77
" 師範大	1	1	1		3	2	7	2	1	3	21
" 法科大	15	12	9	8	11	19	5	12	5	10	106
" 商科大	3	1	1	1	5	9	4	1	2		27
" 農科大					1		3	2		1	7
" 工科大								2	1	1	4
高麗大	1	8	3	5	4	1	3	3	4	2	34
延世大	1		3	2	5		2	1	2	3	19
中央大			1		1				2	1	5
成均館大		1		1	2	1	2	2	3	1	13
東國大			1	1	5	1		2		1	11
全南大	1									1	2
外國語大	1				2	1	1	1	2	1	9
朝鮮大					1						1
清州大	2										2
慶北大			1			1					2
嶺南大					1				2	1	4
國民大			2						1		3
明知大										1	1
崇實大				1							1
釜山			1		1						2

建慶西海陸圓海全	國熙江洋光北計	大大大士大大士大		1	1	1	1	2	1	2	3	
			1	1		1				1	7	
					1						1	
						1					2	
							1				1	
				1				1			1	
									1		1	
			35	30	31	30	50	50	35	35	37	368

出身學校別 統計 (都. 計. 科)

大 學 別	1 9 6 8		
	1 部	2 部	計
서울 大學 校 工 科 大 學	4	5	9
" " 文 理 科 大 學	5		5
" " 農 科 大 學	2	1	3
" " 法 科 大 學		1	1
東 國 大 學 校	2		2
延 世 大 學 校	2		2
漢 陽 大 學 校		1	1
釜 山 大 學 校		1	1
中 央 大 學 校		1	1
計	15	10	25

一部生年度別合格者出身學科別統計

學科別 \ 年度別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計
法 律 學	13	10	8	7	13	6	6	11	7	9	90
行 政 學	5	7	5	7	10	15	2	11	11	11	84
政 治 外 交 學	10	7	8	8	8	3	5	2	3	2	56
商 經 濟 學		1		1	1	2	1		2	1	9
經 營 學	2		3	2	5	11	4		1		28
經 貿 學					1			1			2
國 文 學					2						2
中 文 學						1	1				1
英 文 學	2		2		2	4	2	1	1	1	15
獨 文 學					2	1	3			2	8
佛 文 學						1	1	1	1	1	5
西 班 牙 語 學							1		1		2
外 國 語 學					2	1					3
教 育 學		1		1						1	3
教 育 行 政 學	1						1				2
社 會 學	2	1	2	1			2		4		12

史	學					1		1		2	4	
哲	理			1					2	1	3	
物	學	2	1	2	2	2		1			10	
數	學					1	2	2		1	6	
生	物						1	1			2	
農	學				1		3	1		1	6	
工	學							2	1	2	5	
心	理								1		1	
陸軍士官學校	學										1	
海軍士官學校	學		1								1	
海洋大航海科	學	1	1								2	
地	理									2	2	
計		35	30	31	30	50	50	35	25	35	37	368

出身學科別 統計 (都. 計. 科)

學 科 別	1 9 6 8		
	1 部	2 部	計
建 築 工 學	3	1	4
社 會 學	2		2
行 政 學	2		2
考 古 人 類 學	1		1
土 木 工 學	1	5	6
法 學	1	2	3
農 經 濟 學	2		2
機 械 工 學	1		1
林 學	1		1
地 理 學	1		1
政 治 學	1	1	
英 文 學	1	1	
計	15	10	25

④ 階級 및 部處別(2 部生—入學當時)

우선 階級別로 볼적에 一般職에서는 10 年을 통해서 3 甲과 3 乙이 絶對多數를 占하고 있으나 그間의 傾向으로는 3 乙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는 入試가 學術에 관한 公開競争인 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는 軍隊의 경우도 大領級以下가 絶對多數를 차지하고 있으나 반드시 少領이 보다 많은 比率를 차지해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다음 部處別로 보면 軍人 其他의 比率이 훨씬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入試의 査定原則에 따라 그와 같이 되고 있다고 보아야 겠으며 지난 10 年間 20 名 以上の 경우가 9 部處이며 그中 當該部處의 人員比로 볼적에 비교적 많은 部處가 監査院, 總務處, 內務部, 國防部(軍除外), 文教部, 交通部, 遞信部, 서울市, 國會등을 들수 있을 것 같다.

2 部生 階級別 統計表

—行政學科
—部. 計. 科

職別	階級別		年度別									計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一般職	2	甲		3	1			1			2		7
	2	乙							1		1		2
	3	甲	13	10	11	10	9	5	14	12	5	8 ³	97 ³
	3	乙	19	31	18	16	17	24	23	24	40	46 ⁷	258 ⁷
	小計		32	44	30	26	26	60	38	36	48	54 ¹⁰	664 ¹⁰
軍人	少將				1								1
	准將		2		1		2		1	1			7
	大將		5	3	4	3	2	2	2	3	5	2	31
	中將		2	3	3	9	2	4	2	1	3	1	30
	少將		3	7	16	8	6	3	6	4	2	2	60
小計		15	13	25	20	12	9	11	9	10	5	129	
其他	部長(次長)		4		1	3	1	2	1	5	3	1	21
	課長(代理)		2	4		3	2	2	2	2	2	2	19
	其他		13	9	13	18	10	7	13	14	4	1	102
小計		19	13	14	24	13	11	16	21	7	4	142	
合計		66	70	69	70	51	50	65	66	65	63 ¹⁰	635 ¹⁰	

2 部生 部處別 統計表

(—部. 計. 科)
(—行政. 科)

部處別	年度別											計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青瓦臺							4	1		4		9
副統領秘書室	1											1
監查院	2	1	1		1	2	4	2		2	4	19
國務總理企劃室						2					1	3
經濟企劃院				2	3	1	1	1			1	9
總務處			2	3	4	5		1			2	17
法制處	1				1		1			2		5
中央公務員教育院				1	1					1		3
授護處				1								1
科學技術處					1					1		1
外務部	1	1			2		1	1		2	3	11
內務部	4	9	2	6	3	4	1	4	2	2	4 ²	39 ²
財務部	3	6	2	3		2	1	2	1	1		20
國防部	3	2	1					2	3		1	12
國文部	2	4	6	2	2	4	4	1	2	2	2	29
農林部	4	4	3	2	1			1	5		1	21
農林部	2	2	1	2	1		3	1	1	1	1	14
商工部	1			1	1	1		1	5		4	14
建設部	2		2	1							5	5 ⁵
保健部	1	4	1			1	1		1	1	1	10
交通部	2		4	2	3	3	1	3		2		20

遞文	信公	部	3	5	5	1	1	2	7	4	3	10	41
서	울	廳	1	2		1	1	1	1	1	1	2	11
國	市	會	1	3	2	1	4	1	1	9	3	4 ²	29 ²
陸		軍	1	2	1	4	2	4	5	3	1	3	26
海		軍	7	6	15	12	5	3	4	8	3	4	67
空		軍	2	1	2		1	3	2		3	2	16
海		隊	2	2	4	1	3	1	1	2	3		19
國	兵	廳	3	1		1	1		1		1		8
勞	稅	廳									3	2	5
專	動	廳							1				1
原	賣	廳		1								1	2
水	子	廳		1					3	1	1	2	8
調	力	廳	1								1	1	3
鐵	產	廳	1					1					6
農	達	廳		2	1						3	1 ¹	6 ¹
中	道	協		1		1			1	2		1	6
央	情	部					1		2	2	1	1	7
銀	報	行	2	2	1	1		3	1	1	1	1	12
國	營	體	4	3	1	3	1	1	2	1		1	17
個	業	體	3							1	1		5
其	業	他	6	4	12	17	8	5	11	10	4		77
合	計		66	70	69	70	51	50	65	66	65	63 ¹⁰	635 ¹⁰

2. 教科課程

가능한 限 大學院의 教育目的에 일치되는 學生을 받아들인 후 教科內容도 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社會變動 및 教育目的의 修正에 따라 教育內容도 수시로 變更을 보게 된다. 이에 따라 여기서는 우선 教科, 成績, 論文 등으로 크게 나누어 各各 지난 10年間 어떻게 變해 왔는가 하는 것을 檢討하려고 한다.

(1) 教科內容

① 1959年

必須課目	學點
組 織 管 理 論	2
財 務 行 政	2
人 事 行 政	2
韓 國 政 府 論	2
調 查 方 法 論	2
會 計 學	2
統 計 學	2
財務行政세미나	} 三科中에서 一科目必須擇一 2
人事行政세미나	
組織管理세미나	

必須科目總履修學點 18學點

選擇科目	學點	選擇科目	學點
行 政 法	2	調 查 方 法 論 세 미 나	2
憲 法	2	會 計 學 세 미 나	2
國 際 行 政	2	公 法 세 미 나	2
比 較 行 政	2	以上 16科目中에서 10學點	
公 企 業 論	2		
地 方 自 治 論	2		
公 共 關 係 論	2		
外 援 行 政	2		
計 劃 論	2		
社 會 心 理 學	2		
政 治 行 態 論	2		
福 祉 行 政	2		
行 政 學 特 講	2		

② 1962 年

選擇科目으로 經濟分析, 經濟發展論, 比較政府論, 事務管理論, 國際關係論, 法律學特講, 地方自治論세미나, 計劃論세미나등을 추가 하였다.

③ 1963 年

法學概論, 政治學概論, 經濟學概論을 學部에서 이수하지 않은 學生에게 學點없는 必須로 하였다.

④ 1967 年

(1) 必須科目

- | | | |
|-----------|------------------------|------|
| (1) 組織管理論 | (6) 組織管理論세미나 | } 擇一 |
| (2) 人事行政論 | (7) 人事行政論세미나 | |
| (3) 財務行政論 | (8) 財務行政論세미나 | |
| (4) 韓國政府論 | (9) 統計學(學部에서 未履修者에 限함) | |
| (5) 調查方法論 | (10) 會計學(") | |

(2) 選擇科目

- | | | |
|-------------|---------------|------------|
| (1) 社會理論 | (11) 公法세미나 | (21) 公企業論 |
| (2) 社會心理學 | (12) 調查方法論세미나 | (22) 行政行態論 |
| (3) 比較政治 | (13) 會計學(Ⅱ) | (23) 事務管理論 |
| (4) 國際關係論 | (14) 應用數學 | (24) 租稅行政 |
| (5) 地域機構論 | (15) 行政理論 | (25) 比較行政 |
| (6) 政府企業關係論 | (16) 政策形成 | (26) 發展行政 |
| (7) 經濟分析 | (17) 計劃論 | (27) 國際行政 |
| (8) 經濟發展 | (18) 地方自治論 | (28) 行政學特講 |
| (9) 國際經濟 | (19) 都市行政 | (29) 政治過程論 |
| (10) 憲法 | (20) 行政法 | |

※ Underline 그은것이 新設科目

1. 基礎——1 學期——(1 部 7 科目, 2 部 6 科目)

1. 行政理論(必須)
2. 經濟分析(")
必須 3. 韓國政府論(必須)
4. 調查方法論(必須)
5. 應用統計學(必須—1 部만)
-

6. 政治過程
7. 社會理論
選擇 8. 應用數學
9. 地方行政
10. 行政法 I (大學에서 取得한者是 除外)
11. 國際關係論(")

2. 專攻——2 學期——(1 部 7 科目 2 部 6 科目)

1. 組織理論세미나(必須)
2. 人事行政세미나(")
必須 3. 財務行政세미나(")
4. 經濟發展(必須—1 部만)
5. 會計學(必須—2 部만)—大學에서 取得한 者是 免除
-

6. 行政行態
7. 發展行政
8. 都市行政
9. 公 企 業
10. 比較政治
選擇 11. 外務行政
12. 行政法 II
13. 行政調查세미나
14. 國際經濟
15. 電子計算機制度 I
16. 應用統計學 II
17. 立法過程

3. 政策——3 學期——(1 部 3 科目, 2 部 3 科目)

- 必須 1. 政策形成(必須)
-

2. 高級行政理論(1969 年부터)
3. 機關形成論
4. 計劃理論
5. 管理會計學
6. 經濟計劃
7. 政府企業關係論
8. 通商政策
選擇 9. 財政政策
10. 農業政策

11. 比較行政
12. 地域機構
13. 電子計算機制度Ⅱ
14. 事務改善
15. 安保政策(1969年부터)
16. 公法세미나
17. 特講

※ underline 그은것은 新設科目.

68년에 新設된 都市 및 地域計劃學科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學 期	必 須	選 擇
第 1 學 期	計劃論 空間計劃(立地論) 地域經濟學(Ⅰ) 社會經濟統計	地域計劃行政 都市社會學 經濟地理學 計劃手法
第 2 學 期	空間計劃(地域計劃) 地域經濟學(Ⅱ) 團地計劃 및 設計 都市計劃論	環境衛生保健 不動產行政 都市再開發 人口分析
第 3 學 期	土地利用計劃 經濟計劃 交通計劃論 計劃財政	住宅論 公共施設論 農村計劃論 水資源開發論
第 4 學 期	都市計劃演習 地域計劃演習 論 文	

⑤ 1969年

事務改善을 廢하고 應用統計를 計量分析이라 하여 一部の 경우 1.2學期 必須로 했으며 選擇科目으로서 計劃豫算, 프로젝트管理論, 社會政策, 人力政策을 新設키로 했다.

以上 提示된 것의 特徵을 要略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創設初期에는 거의 美國敎授들이 만들어 준데로 한 것이므로 그 當時의 主로 美國大學院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이며 따라서 管理的 側面이 中心이 되고 數量的인 것을 위시한 經驗的研究를 강조한 것이 特色이었다고 본다. 그當時의 韓國의 學界에 비추어 불적에 상당히 異色的인 것이었으며 크게 이 方面의 敎育내용에 새 方向을 提示하는데 공헌 하었다고 생각한다.

둘째, 3년이 지나면서 敎授들의 能力向上과 美國과 다른 韓國事情에 보다 一致되도록 하기 위한 시도가 196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特色있는 것으로서는 經濟學關係가 강

조되기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이다.

세제, 그러나 創立以來 1966年 末 現在의 李漢彬院長이 부임하기 前까지는 根本적으로 큰 變化가 없었으나 부임후 1967年 부터 크게 變化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67年 新學期까지는 時間的인 餘裕가 많지 않아 必須科目의 基本構造에는 손을 대지 않고 選擇科目을 대폭적으로 수정했다.

이의 內容을 보면 大體로 中間의 學界의 發展에 步調를 맞추고 先驅的인 役割을 하기 위함과 同時에 韓國의 現實的인 需要, 事情에 보다 부응할수 있겠음 1次的으로 손을 댄 것이다. 그러나 다음해인 1968年에는 中間의 時間的인 餘裕와 李院長의 大學院에서의 經驗에 立脚해서 지난 9年間 지켜 오던 基本構造가 새로운 教育目的에 따라 크게 修正을 보았으며 아마 當分間은 이제 現在의 體制대로 지속되어 갈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의 새로운 教育目的이란 學生들에게 政策家로서의 能力을 키워 주되 이는 주로 經濟分野를 重點的으로 생각하였으며 이와 同時에 數量的인 것을 보다 一層 強化하고 行政理論은 물론 社會科學 全般에 걸친 高度의 理論的인 연마 습득을 시켜 보자는 것과 이에 따라 1部 2部の 教育내용도 달라지며 또한 在學 4學期의 教育을 體系있게 해야 하며 따라서 1學期는 주로 基礎, 2學期는 行政學을 中心으로 한 專攻을, 3學期는 政策을, 4學期는 總決算으로서의 論文 및 인턴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目的의 修正에 따른 教科內容의 變更도 이제 大體로 정돈 되었으며 이에 따라 不可避하게 야기 되는 것이 學點의 增加이며 따라서 1961年에 28學點으로 증가 되었고, 다시 1968年에는 1部 34學點, 2部 30學點으로 되었으나 1967年부터는 36學點으로 1.2部 同一하게 서울大 內의 大學院間에 一致기로 하였다.

또하나의 문제는 教授들 간의 教授內容의 調整이다. 各者 講義計劃書를 꾸며 學期가 시작 되기 전에 相互間에 검토, 調整을 하는 것을 創立初에는 美國 教授들의 권유에 따라 被動的으로 하였으나 이들이 물러간 후 호지부지 안하게 되었으나 1967年 부터 다시 대폭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이제는 교수들간의 이 必要性的인 自發的인 인식에 따라 다시 시도되었는데 이의 結果 얻어진 것은 教授 內容의 充實은 물론 교수들 自身의 教育도 되며 이의 效率化를 위해 放學中에 같이 泊하면서 3.40時間 토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2) 成 績

從來의 韓國大學에서는 入學하기만 어렵지 그후에는 쉽게 卒業할수 있었던 것이 特色이다. 좋게 말하면 學生들에게 高度의 自治的研究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나 나쁘게 말하면 교수도 무책임하고 學生들도 別로 工夫안하고 卒業할수 있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方法으로는 특히 2次大戰後 급속히 發展, 科學化 해가는 社會科學을 습득하기 곤란하다는 생각과 大學院의 교수들이 全員 우리와 學問이 全然 다른 美國서 教育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學生들에게 열성적으로 學校工夫에 熱中케 하였다.

이의 具體的인 方案으로서는 宿題를 주고 中間試驗을 본다 고 하는 것과 成績을 等級別로 比率에 따라 내는 것이다. 所謂 強制配分이라고 하는 것인데 初期에는 교수들이 自律的으로 A 30%, B 40% C 以下 30%를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2年이 지난 후 事後評價를 해보니 每學期 확대화 되어 가고 있어 1962年 부터는 強制的으로 누구나 上述한 比率에 꼭 一致케 하고 있다. 물론 이 制度의 缺點을 모르는 것 아니나 現實에서는 이것이 最善의 方法임을 現教授陣은 의견의 一致를 보고 있다.

이와 同時에 또한가지 지적할 것은 碩士學位取得에 소요되는 學點을 다 取得한 學生은 論文準備에 들어가기 전에 碩士論文資格試驗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學習의 強化를 위하여 1962年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客觀式으로 해서 60點을 合格線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學生들의 反對가 있었으나 碩士로서의 一定한 程度의 學力을 갖추게 하는데 目的이 있어 이제는 完全히 制度化되었다. 그간에 이시험의 不合格者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落 第 者 數	1962 年	4 名
	1963 年	3 名
	1964 年	10 名
	1965 年	2 名
	1966 年	2 名
	1967 年	8 名
	1968 年	3 名
	計	32 名

3. 強 制 配 分

實 施 年 度 1962 年 度

끝으로 學校出席을 과거에는 教授에 一任하고 있었으나 教育의 充實과 學生들로부터의 不平을 막는다는 理由로 1967年부터 一律的으로 成績에 反映토록 하였으나 반드시 劃一的으로 몇 %의 比重을 두게 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이 敎科內容을 새로운 目的에 따라 改編, 體系化하고 이의 內容을 충실히 습득하도록 出席, 強制配分, 學點數, 論文資格試驗, 宿題, 中間試驗등의 方法을 쓰고 있어 後述하겠지만 本大學院의 경우 入學만이 아니라 卒業도 어렵게 되어 있는 韓國에 特異한 學校라고 본다.

여기에 끝으로 附記할 것은 1部生의 경우 學習上 큰 문제의 하나는 3級公開採用試驗의 準備와 學校工夫와의 갈등이다. 卒業後 政府에 就職을 희망하는 學生의 경우 4級甲類 보다는 3級에 매력을 끌리게 되기 때문이다. 종래에도 이문제의 解決을 위해 努力해 왔지만 今後에도 계속 努力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論文 및 인턴

이러한 學習課程을 마치면 論文作成에 들어가게 되는데 一部生の 경우는 行政各部處에 인턴을 거치게 되어 있어 2重인 일을 하게 된다. 이 制度는 70년대 부터 現在까지 별로 變換 없이 실시되고 있다. 美國의 制度를 따랐기 때문에 70년대인 1960年에 시작할 때는 各部에서 이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어 상당한 애로에 봉착했고 存廢의 문제까지 나오게 되었으나 점차 이에 대한 이해가 특히 本大學院 2部出身을 中心으로 생기기 시작하여 이제는 別문제가 없을 정도로 호전 되었다.

이의 趣旨은 理論과 實務의 架橋 및 就職의 前哨的 役割을 하기 위한 것이며 現在도 變換 없다. 따라서 이기간 동안에 學生은 실무에 익히고 그 部署의 責任者와 學生間에 雇傭에 合意되면 그 部處에 취직하게 됨으로 現在 一部生の 근무처에 관한 統計는 거의 이들의 인턴 部處와 一致된다고 보아도 과히 틀림이 없을 것이다.

論文은 學生이 指導教授를 선정해서 作成하게 되는데 從來에는 거의 指導教授別로 一任하여 두었으나 그의 結果는 論文體裁, 質에 있어 너무나 差가 심하여 점차적으로 이의 是正을 위하여 우선 着手한 것이 體裁에 관한 規程을 1965年 11월에 決定하고 이에 따르게 하였으며 1967年부터 다시 質의 向上을 위하여 9月初부터 教授學生 全體會議를 2週에 1回씩 召集하고 出席을 부르고 論文體裁, 새로 作成된 審査基準등을 說明하고 10월에 中間發表를 하게 하고 있다. 이의 취지는 시작을 빨리 시키고 體裁 및 內容의 向上을 기하기 위함이며 어느정도 效果가 있었으나 1968年 부터 教科의 修正에 따라 前에는 事實上 많은 學生이 第3學期부터 論文準備를 組織, 人事, 財務行政 세미나 時間에 끝였으나 이제는 그러하지 않아 時間적으로 상당히 不足한 感을 주고 있어 1969年부터는 第3學期 부터 論文指導를 시작하여야 할것 같다.

이와 같이 論文, 學習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國內의 他大學院에서 볼수 없는 方法을 利用하고 있어 學生들은 들어 오기도 어렵지만 體系의 體系的으로 짜여진 教科를 충실히 習得하지 않고는 修了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다음의 落伍率(mortality rate)에서 볼수 있다. 물론 여기의 落伍者가 모다 學業이 不美하여 그런 것은 아니고 兵役, 轉勤등의 事由에 의함도 있음을 附記한다.

年 度	落 伍 率	
	落 伍	率
1961 卒業	87 名 卒業	13%
1962 "	70 "	30 "
1963 "	63 "	37 "
1964 "	64 "	36 "
1965 "	70 "	30 "

1966 "	56 "	44 "
1967 "	63 "	37 "
1968 "	61 "	39 "
1969 "	52 "	48 "

점차적으로 落伍率이 높아가고 있어 거의 50%에 接近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측 強要하는 方法만 利用할 뿐만 아니라 積極的으로 우수한 者를 장려하기 위하여 首席卒業者의 명단을 圖書室에 걸기도 했으며 또한 1966年度부터 우수논문은 要略해서 行政論叢에 게재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名單은 다음과 같다.

首 席 者 名 單

年 度	1 部			2 部		
1961	金	燦	東	朴	賢	植
1962	申	昌	雨	金	址	燦
1963	韓	昇	洙	李	仁	建
1964	金	佑	炫	鄭	柄	宙
1965	安	秉	永	孫	在	植
1966	孫	鍾	爽	姜	五	允
1967	金	容	鎮	李	槿	燮
1968	金	容	玉	金	明	勳
1969	金	時	振	朱	性	熙

優 秀 論 文 提 出 者

1966年度 許範, 安文錫, 李槿燮, 黃道淵

1767年度 康誠元, 金炯國, 鄭淑鍾, 余尙煥

1968年度 朴永吉, 盧化俊, 黃斗英, 金時振, 朴鍾治

1968年度 부터는 首席卒業者의 決定을 단순히 學校成績으로만 하지않고 論文도 A 이상이 어야 한다고 함으로서 論文의 重要性을 강조하게 하였다.

3. 學生指導

大學院에서의 學生指導는 당연히 學問研究上的 것이 主가 되겠으나 1部生의 경우는 곧 社會進出의 문제가 있어 이것이 상당히 높은 比重을 차지해 왔다. 즉 外國留學 또는 就職, 後者의 경우는 어느 부처에 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도를 물론 교실에서 할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個別的으로 교실을 떠나서 하여야 할 때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機會가 마련되는 것이 學生會를 中心으로 한 것과 指導班을 中心으로 하는 것이 創立初부터 있었다.

그러나 어느 것이나 滿足스럽지 못할것 같다. 따라서 좀더 學生相互間 또는 學生과 教授間의 接觸을 긴밀히 해 보고져 1967年 부터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시도하여 보았으나 成功

한 것도 있고 成果를 별로 견우지 못한 것도 있다.

① 1966年 末부터 1學年生에게 여론 조사를 定期的으로 지난 3年間 실시하여 學生과 教授間의 自由로운 意思傳達의 길을 마련 함으로서 學生들의 希望問題, 不滿이 어디에 있으며 發展을 위한 妙案을 얻는데 每年 크게 공헌하여 왔다. 따라서 이것은 每年 하는 것으로 正式으로 制度化했으면 한다.

② 個人別 對話의 時間을 갖게 하기 위하여 教授들의 Office hour를 固定시켜 1967年 부터 실시 하였으나 별로 成果가 없는 것 같아 1年半後에 다시 廢止하였다.

③ 2學年生은 每年 産業 行政視察旅行을 1967年 부터 갖고 있어 이의 成果評은 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 역시 每年 실시하면 좋겠으며 時期는 1學期 中間시험 실시 직후가 가장 適切한것 같다.

④ 婦人을 學校에 초대하는 일인데 이의 目的은 學校, 學生, 婦人間의 理解增進을 위한 것이며 1967年부터 실시하여 왔으며 1967年度 卒業生부터는 그간 수고 했다는 의미에서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처음에는 成功에 自信이 100% 있지 않았으나 大體로 成功한 것으로 본다.

⑤ 學生들간의 理解增進을 위하여 2部生의 경우 1968年 부터 學期別로 班編成을 달리하고 있어 卒業前에 相互間에 同級生으로서의 유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⑥ 끝으로 지적할 것은 從來에는 學生會費가 적어 언제나 무슨 行事が 있으면 卒業生에게 가서 기부를 얻는 方法을 써와 在學生과 卒業生間에 좋지 못한 關係가 形成될 우려가 있어 1968年 부터는 學生會費를 引上하고 一切 卒業生에 기부를 받지 않게 하였으며 이는 1968年度의 學生會員 및 會長團의 적극적인 協助로 이루어졌다.

4. 結 語

行政大學院이라고 하는 것이 10年前 外國人에 의하여 거의 外來的으로 이식된후 우리 스스로의 自覺과 能力의 向上에 따라 짧은 歷史에 비하면 많은 變化 發展을 教育面에서 이룩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계속 打開하고 解決해 나가야 할 몇가지 문제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入學에 있어 최근 2部生의 質的向上이 급격히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向上의 餘地는 남아 있다.

(2) 教科의 內容은 大體로 一旦 完備되었으므로 남은 문제는 계속 熱誠的인 學習을 한 者만이 成功的으로 修了할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論文의 研究題目의 선정이나 目的이 고도로 向上되었으나 아직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장시간에 걸쳐서 자주 교수의 지도를 받게 하는 것이 主要한 解決策의 하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4) 1 部生中 大部分 行政府에 進出하는 것을 希望하고 있어 이들의 職級과 3 級試驗과의 연계를 맺어 주는 것이다.

(5) 學生指導에 있어서 아직 解決을 별로 보지 못한 문제는 學生과 教授間의 個人的 集團的 對話의 機會를 갖는 것이다. 集團的인 것을 위해서는 교실에서 강의방법을 對話, 討議式으로 轉換하는 길과 校外活動을 자주 갖는 것이 겠으며 個人的인 對話의 경우는 研究室 휴게실, 自宅에서 갖는 것이겠다.